

# 한국 비판언론학의 질적 연구방법 적용사례 연구\*

강진숙\*\*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부 조교수)

---

이 연구의 목적은 비판언론학의 질적 연구방법론 적용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방법론적 성찰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비판언론학의 정체성 일부를 형성해온 언론학 패러다임 논쟁을 살펴보고, 이 논의를 기초로 질적 연구의 특성과 전통적 방법론의 유형에 대해 논의하였다. 나아가 한국 비판언론학을 주도해온 한국언론정보학회의 학술지에 게재된 학술논문들을 분석하여 질적 연구방법론 적용사례의 경향들을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해결을 위한 분석범주는 이론적 배경 및 방법론, 표본추출전략, 자료 수집방법, 자료 분석방법 그리고 신뢰성 검증 등 총 다섯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표본논문의 추출기간은 자료검색이 가능한 1998년도의 『한국언론정보학보』 제11권부터 최근 2007년 제40권까지로 설정하였고, 이 기간에 게재된 총 254편의 논문들 중에서 본 연구의 주제에 부합하는 논문들을 수집해 들어갔다. 논문의 수집방법은 키워드 검색기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국내 비판언론학은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보다 세부적이고 엄격한 방법론적 논의와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양한 이론과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지만, 방법론을 설계하고 결론을 도출함에 있어 세부적인 분석범주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주제어: 패러다임, 질적 연구방법, 비판언론학, 패러다임 갈등

---

##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비판언론학의 정체는 무엇인가? 과거 언론학의 패러다임 논쟁은 이러한

---

\* 이 논문은 2008년도 중앙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함.

이 논문에 대해 섬세하고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jskang1@cau.ac.kr

정체 규명에 실마리를 제공했다. 이른바 실증주의 학문의 보수적, 체제지향적 전통에 대한 ‘안티테제’로서의 위상이 그것이다. 도전자로서의 신선한 반격은 정치적 당파성을 지켜내기에 부족함이 없었고, 비판 패러다임은 맑스주의, 정치경제학, 후기구조주의, 문화연구 그리고 담론연구까지 다양한 이론과 방법론의 모색 속에서 진화되어왔다. 그리고 다시 2008년 오늘, 그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비판패러다임의 학문적, 실천적 정체성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러한 질문은 패러다임의 의미를 다시 떠올리게 한다. 패러다임이 한편으로 위기의 징후들을 범주화해서 기존의 구조적 문제들을 드러내주는 분석 개념이라면,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이론적, 인식론적 모델을 제시하는 실천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패러다임의 개념 속에는 위기뿐만 아니라 새로운 위기 전환의 가능성이 동시에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강진숙, 2006). 1980년대 이후 다수의 언론학자 및 연구자들이 패러다임의 위기와 변화를 논의한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과 궤를 같이한다. 1980년대의 국제심포지엄에서부터 표면화된 경험적 연구와 비판언론학 간의 갈등 국면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그 국면이 대화와 수렴의 담론으로 발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패러다임 간의 갈등과 위기에 적극 도전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던 역동적 과정들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다시 문제는 방법론의 패러다임이다. 과거의 패러다임 논쟁이 정치적 이슈를 둘러싼 이념적 적대 지형 위에서 전개되었다면, 이제 그 논쟁은 보다 구체적인 학문적 실천과 방법론적인 차이의 장에서부터 재점화될 필요가 있다. 비판언론학의 정체는 이제 안티테제의 위상이 아닌 ‘차이 그 자체’로서의 역동적 학문생산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비판언론학의 질적 연구방법론 적용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방법론적 성찰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우선, 비판언론학의 정체성 일부를 형성해온 언론학 패러다임 논쟁을 살펴보고, 이 논의를 기초로 질적 연구의 특성과 전통적 방법론의 유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나아가 한국 비판언론학을 주도해온 한국언론정보학회의 학술지에 게재된 학술논문들을 분석하여 질적 연구방법론 적용 사례들의 경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 2. 비판언론학과 질적 연구방법론의 쟁점

### 1) 언론학 패러다임 논쟁의 두 축<sup>1)</sup>

언론학 패러다임은 학계의 관심이 두드러졌던 두 가지 논쟁의 축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하나가 실증주의 대 비판커뮤니케이션의 대립 속에서 제기된 패러다임 갈등론이라면, 다른 하나는 신자유주의적 가치와 뉴미디어 시장에 관심을 기울이는 기술과 시장 중심의 패러다임 논이다. 전자의 경우 패러다임 갈등, 대화 그리고 수렴에 대한 논의 과정을 거쳐왔다면, 후자의 경우는 기술과 시장 중심의 쟁점이 다른 학문적 쟁점을 압도하는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그러면, 언론학 패러다임의 문제는 어떠한 맥락 속에서 쟁점화되었는가?

우선, ‘패러다임 갈등론’의 쟁점은 국제적인 커뮤니케이션 논쟁의 맥락 속에서 나타났다. 이 논쟁의 발단으로 지적되는 사례는 *Journal of Communication*의 여름 특집호 『학계의 동요(Ferment in the Field, FIF)』(1983)에 실린 국제 심포지엄 발표논문들이다. 이 연구들은 “새롭고 활발한 연구의 출현”(FIF, 1983, p.4)을 보여준 비판적 연구에 대한 관심과 함께 패러다임 갈등의 문제를 드러내는 계기(양승목, 1992)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예컨대, “비판적 연구와

1)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 문헌에 근거함. 강진숙, 2006, 3~6쪽.

‘패러다임’의 어원은 라틴어 ‘Paradigma’로서 준거가 되는 전범과 모델을 의미한다. 이 개념이 전문적 학술용어로 사용되면서 점차 이론적, 인식론적 입장들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 중심에는 패러다임을 처음으로 이론이나 법칙의 수준에 준하는 개념으로 끌어올린 토마스 쿤(T. S. Kuhn)이 자리하고 있다(방정배, 1999; 이영찬, 2003). 쿤은 자신의 주저 『과학혁명의 구조(Der Struktur wissenschaftlicher Revolution)』(1962)에서 패러다임을 “일군의 과학자 집단(공동체)에 소속된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인식의 틀”(Kuhn, 187)로 정의하면서 20세기 과학철학의 논쟁을 주도하였기 때문이다.

행정적 연구(Administrative Research)의 논쟁”을 다룬 멜로디와 만셀의 연구(Melody & Mansell, 1983)를 비롯하여 “비판적 연구와 노동자의 역할”을 규명하는 모스코의 연구(Mosco, 1983) 등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여기서 두드러진 것은 행정적 관점과 비판적 관점의 갈등에서부터 양적 연구(quantitative research) 대 질적 연구(qualitative research) 그리고 인문주의 대 사회과학적 연구 사이의 대립이다. 요컨대 핵심은 전통적 경험적 연구와 비판언론학 사이에는 양립할 수 없는 이론적, 인식론적, 이데올로기적 입장의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간극, 즉 패러다임 갈등은 곧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의 학문적 입장에 대한 정체성의 위기로 관심이 고조되었고, 이윽고 1985년에 국제커뮤니케이션학회(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ICA)는 “논쟁을 넘어서: 패러다임 대화(Beyond Polemics: Paradigm Dialogues)”라는 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 주제를 설정한 기본 목적은 “피상적인 차이와 대립을 초월함으로써 논쟁을 극복하고, 서로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더욱 잘 이해하고, 경우에 따라 이러한 일련의 차이점이 이질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풍부하게 하는 것임을 더 잘 이해하는 것”(Dervin et al, 1989, p.9)이다. 요컨대, ‘패러다임 대화’는 전통적 경험주의 언론학 패러다임과 비판언론학 패러다임 사이의 갈등과 학문정체성의 위기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양 패러다임의 차이에 대한 상호인정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런데 위에서 본 『학계의 동요(FIF)』와 『패러다임 대화(ICA)』의 사례가 언론학의 패러다임 간 갈등 및 대화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면, 1989년에 발간된 『커뮤니케이션 재고(Rethinking Communication, RC)』는 언론학 연구의 ‘학제적(interdisciplinary)’<sup>2)</sup> 성격을 강력히 제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1985년도에 발표된 학회의 주제논문들과 저명학자들의 논평을 수록한 이

2) 여기서 학제(interdisciplinary, 學際)란 ‘학문과 학문 사이’를 의미하며, ‘학제적 연구’는 서로 이질적인 분야의 학문과 학문 간에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각 분야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연구경향을 지칭한다.

책은 『학계의 동요』와 유사한 맥락에서 지배적 패러다임에 대한 이론적, 방법론적, 이데올로기적 비판과 도전(Hall, 1989, pp. 40~52)을 시도했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론과 방법론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연구방법들을 상호 인정하는 ‘다원주의(pluralism)’적 시각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커뮤니케이션 재고(RC)』의 진전된 성과를 찾아볼 수 있다(양승목, 1992). 결국 위의 세 사례들은 언론학 연구의 패러다임을 둘러싼 갈등과 대화 그리고 다원주의적 상호 인정에 이르는 소통의 여정을 보여주었고, 나아가 이론적, 방법론적 이질성과 다양성을 인정함으로써 패러다임 간의 갈등을 이슈화할 뿐 아니라 인문학과 사회과학 간 학제적 융합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 한국의 언론학은 어떠한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국제 커뮤니케이션 학회와 저널의 경우 이미 1980년대에 이질적 패러다임 사이의 대화 모색과 학문적 다원주의의 길을 추구했다면, 우리의 경우 그 시기는 정치적 당파성과 방법론적 배타성이 요구되던 격동의 시기였다. 즉 1960년대 이후 1970년대 까지 경험주의적 연구들이 주류 패러다임을 형성했다면, 1980년대에는 비판언론학이 기존의 지배적 패러다임에 대한 도전으로 평가되었다. 그 이유는 이 시기의 비판패러다임이 외적으로 사회구조, 운동, 인식 심화과정의 일부분으로 간주된 한편, 내적으로는 “1970년대 실증주의학의 보수적, 체제 지향적 전통과 지적 학문적 종속에 대한 안티테제로서의 성격”(조향제, 1990, 430쪽)을 강하게 띠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판패러다임은 발전을 꾀하면서 문화주의/구조주의/맑스주의/페미니즘 등 다양한 프리즘을 형성하였다. 요컨대, 우리의 1980년대는 다양한 이론과 방법의 다원주의가 아니라 실증주의 대 비판패러다임 사이의 갈등이 표출된 시기였고, 비판패러다임에는 맑스주의뿐 아니라 다양한 이론적, 방법론적 접근의 스펙트럼이 존재했다.

하지만, 격동의 시기가 지나고 1990년대 이후 국내에서도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패러다임 갈등, 즉 ‘주류 패러다임’과 ‘비판패러다임’ 간의 갈등과 기존의 적대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즉 양자 간 대립의 축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 중에서도 두드러진 점은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뉴미디어

시장의 쟁점, 즉 기술과 산업 중심의 패러다임이 점차 다른 학문적 쟁점들을 압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sup>3)</sup> 이러한 맥락에서 원용진은 “신자유주의 공세를 맞아 언론학의 ‘주류 패러다임’과 ‘비판패러다임’ 모두가 위기”(원용진, 2005, 4쪽)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지적하며, 특히 초기 비판언론학이 도전했던 구조 기능주의, 실증주의에 입각한 커뮤니케이션 과학의 모습은 사라졌고 “그렇게 강력히 비판적 거리를 두고자 했던 행정적 연구에 본격 착수한 듯하다”(원용진, 2005, 6쪽)고 비판하고 있다. 비판언론학이 과거에는 기본적으로 미디어의 이데올로기적 특성과 사회적 역할 등을 논의했다면, 현재는 시장에서의 수행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한 상품생산 및 소비 분야나 뉴미디어 분야의 기술패러다임에 무게중심이 더 기울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판언론학의 대립 축과 긴장의 상실은 곧 주류 패러다임의 황폐화를 가져온다. 즉 주요 개념들 대부분이 디지털 기술패러다임 속에 갇혀 있거나 정책 및 행정학 등에서 차용한 것들이 중심이 됨으로써 한국적 언론학의 이론 및 방법론의 빈곤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타 학문 분야에 비견하여 언론학이 관심 분야로 각광받고 있지만, 정작 비판언론학은 방법론 개발을 통한 학문적 지평의 확대라는 문제를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그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압축해서 제안할 수 있다. 하나는 진보성을 견지한 학문적, 인식론적 차이와 쟁점을 통한 이론적 지평의 확대이고, 다른 하나는 이 차이를 전제로 한 질적 연구방법의 체계화와 개발이다. 이것은 경험주의/실증주의 패러다임과 비판언론학 패러다임 간의 인식론적 차이를 발견하고 학문적 소통의 방법을 찾는 길이다.

2008년 현재, 진보성을 견지한 질적 연구방법의 체계화와 개발은 여전히 비판언론학의 중요한 과제이다. 그 이유는 한편으로 비판언론학이 현실 사회

3) 물론 뉴미디어나 디지털 사회 그리고 미디어 융합시대를 논하는 연구들이 모두 기술과 시장 중심의 견해에 편향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주제와 연관된 연구의 흐름들이 타 분야에 비해 더 기술결정론과 시장 중심주의적 편향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에 대한 거시구조적 비판을 넘어서서 다양한 국면의 문제설정과 미시적 접근을 시도할 필요성 때문이다. 즉 수량화하거나 거시적 접근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사건과 현상, 그리고 주체들의 입장에 대한 접근을 위해 다양한 학문적 성과와 방법론적 개념들을 수렴하는 질적 연구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한 것이다. 또 다른 한편, 학문영역에서 점차 산업적 실익과 행정적 편의를 추구하는 경향이 팽배해가는 현실에서 진보적 학문영역 역시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진보적 가치의 재생산을 위해서는 선명한 입장을 도출하는 것 못지않게 그 입장을 설득하는 과정과 논리적 증명방법 역시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곧 서로 다른 입장과 차이를 전제로 한 학문들 간의 소통을 가능케 하는 기본 전제인 것이다.

본 연구에서 비판언론학의 질적 연구방법 적용 사례를 탐구하고자 하는 이유도 여기에 근거한다. 급변하는 미디어 융합 환경에서 비판언론학의 정체성을 지속시키는 일 중의 하나가 질적 연구방법론의 영역에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즉 1980년대의 진보와 보수 진영의 첨예한 이데올로기적 대립 지형 속에서 실증주의 및 경험주의적 언론학에 대한 이념적 안티테제를 제시 하던 비판언론학의 정체성은 재고되어야 한다. 비판언론학이 자생적 힘을 찾기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이 바로 연구방법론의 성찰과 새로운 방법론적 실험인 것이다.

## 2) 질적 연구의 특성과 전통적 방법론의 유형

비판언론학은 양적 연구보다는 질적 연구의 이론적 전통과 방법론을 적용한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그 이유는 질적 연구의 개념, 목적, 연구 상황, 전통적 방법론의 유형 등이 비판언론학과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기준으로 여기서는 질적 연구가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고, 구체적인 방법론적 유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질적 연구의 개념적 정의를 살펴보자. 질적 연구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들마다 다양한 견해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중에서 두드러진 것은 간호학

분야에서 질적 연구방법론을 연구한 덴진과 링컨(Denzin & Lincoln), 그리고 크레스웰(Creswell)의 정의이다. 덴진과 링컨에 따르면, 질적 연구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사물을 연구한다는 측면에서 자연주의적 접근에 근거하며, 의미를 통해 현상을 이해하거나 해석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해석적 접근을 사용한다. 이에 따라 질적 연구는 개인의 삶에 있어서 일상적이고 문제가 되는 순간들과 의미를 기술하는 다양한 경험적 자료들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며 수집하는 연구방법이다. 여기서 경험적 자료란 사례연구, 개인적 경험, 내적 성찰, 인생 이야기, 면접, 관찰, 역사적, 상호작용적, 시각적 텍스트들을 지칭한다(Denzin & Lincoln, 1994, p.2). 따라서 질적 연구는 사회현상이나 개인, 그리고 사물을 ‘자연스럽게’ 관찰·기록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행위의 맥락과 속성을 발견하고 분석하는 연구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다. 크레스웰에 따르면, 이 정의는 질적 연구를 위한 철학적 가정들인 해석적, 자연주의적 접근과 복합적인 정보원들, 그리고 연구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내러티브 접근들을 포함하고 있다(Creswell, 1998/2005, p.33).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질적 연구는 사회와 인간의 문제를 탐색하는 독특한 방법론적 연구전통들에 기반을 둔 연구과정이라 정의할 수 있다. 즉 질적 연구는 복합적이고 전체적인 그림을 구축하고, 언어를 분석하며 정보제공자들의 구체적인 시각들을 보고하고,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질적 연구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곧 질적 연구를 하는 이유로서 양적 연구와의 차이를 두드러지게 하는 범주이다. 크레스웰이 강조하는바, 질적 연구는 ‘가장 엄격하게 전개된’ 양적 연구와 훌륭한 동반관계를 이루는 것으로서 ‘통계적’ 또는 양적 연구에 대한 손쉬운 대체방법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질적 연구는 한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강력한 헌신이 필요하고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요되는 작업(Creswell, 1998/2005, p.34)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질적 연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몇 가지 핵심적인 근거들(Creswell, 1998/2005, pp.35~36 참조)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질적 연구는 주로 원인과 영향을 설정하는 양적 연구와 달리 ‘어떻게’ 또는 ‘무엇’이라



는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주제에 접근하게 된다. 둘째, 주제에 대한 심층적인 탐색을 행하기 위해서다. 이것은 변수들이 쉽게 가시적으로 확인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참여자들이나 연구 모집단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이론이 없고, 그래서 이론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사항은 근거이론에 특화된 설명일 수 있다. 근거이론은 특정 현상을 해석할 수 있는 이론의 개발을 연구목적으로 설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론 개발 외에도 이미 제시된 특정 이론을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례를 선정, 발굴하여 질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시각을 제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질적 연구는 연구자 및 연구 참여자의 주관성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특히 비판언론학에서 주로 다루게 되는 사회구조적으로 민감한 이슈와 개인 및 집단의 정서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경우 질적 연구는 유의미하다. 특정 주제와 문제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질적 연구는 주관성에 근거하여 개별적 경험, 사건, 이야기 등을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채집하고 분석할 뿐 아니라 맥락화하고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질적 연구는 어떠한 연구상황에서 이루어지는가? 이것은 질적 연구의 조건과 체계에 관한 것으로서 양적 연구와의 대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이다. 레긴(Ragin, 1987)의 비교에 따르면, 양적 연구는 소수의 변수들과 많은 사례를 기초로 진행된다. 예컨대, 특정 변인들의 검증을 위해 다수의 응답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반면, 질적 연구는 소수의 사례들과 많은 변수들에 의존하는 연구이다. 즉 소수의 인터뷰 참여자나 소수의 사례들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양적 연구와 연구조건이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은 질적 연구가 거의 통제되지 않은 조건과 자연스러운 개방 체계에 근거하여 개인의 이야기와 정서, 그리고 인식태도 등을 도출하는 특성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질적 연구의 전통적 방법론은 연구자마다 서로 다른 분류를 행하고 있지만, 면밀히 살펴보면 학문 전공분야별로 유사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표 1> 참조). 우선 교육학 분야의 야콥(Jacob, 1987)

<표 1> 질적 연구방법론의 유형에 대한 연구자들의 시각

분야	연구자	년도	질적 연구방법론의 유형	
교육학	Jacob	1987	· 생태학적 심리학 · 인지인류학 ·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 총체적 문화기술지 · 의사소통의 문화기술지
	Lancy	1993	· 인류학적 관점 · 전기적 관점 · 개인에 관한 이야기 · 역사연구	· 사회학적 관점 · 사례연구 · 인지연구
	Creswell	1998	· 전기적 생애사 · 근거이론 · 사례연구	· 현상학 · 문화기술지
간호학	Munhall & Oiler	1986	· 현상학 · 문화기술지	· 근거이론 · 역사적 연구
	Strauss & Corbin	1990	· 근거이론 · 현상학 · 대화분석(Conversational Analysis)	· 문화기술지 · 생애사
	Morse	1994	· 현상학 · 민족과학(Ethnoscience)	· 문화기술지 · 근거이론
심리학	Moustakas	1994	· 문화기술지 · 해석학 · 발견적 연구 (Heuristic Research)	· 근거이론 · 경험적 현상학 연구 · 초월론적 현상학
	Slife & Williams	1995	· 문화기술지 · 사회적 가공물 연구(Studies of Artifacts)	· 현상학
사회 과학	Denzin & Lincoln	1994	· 사례연구 · 현상학, 민속방법론, 해석학적 실천 · 근거이론 · 역사연구	· 문화기술지 · 전기연구 · 임상연구
	Miles & Huberman	1994	· 해석주의(Interpretivism) · 협력적인 사회연구	· 사회인류학

출처: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전통』, Creswell, J. W., 조흥식 외 공역, 1998/2005, 학지사, 22쪽 재구성.

과 랜시(Lancy, 1993)가 인류학적 방법론을 중심에 두고 있다면, 간호학 분야의 연구자들(Munhall & Oiler, 1986; Strauss & Corbin, 1990; Morse, 1994)은 문화기술지, 근거이론, 그리고 현상학적 방법론을 주요하게 포함시키고 있다. 한편, 심리학 분야(Moustakas, 1994; Slife & Williams, 1995)의 경우 문화기술지와 현상학을 공히 방법론으로서 제시하고 있다면, 사회과학 분야(Denzin & Lincoln; Miles & Huberman, 1994)의 경우 모두 해석학적 방법론을 기본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전공분야별로 질적 연구의 유사성이 발견된다.

이 중에서 주목할 점은 교육학 분야에서 질적연구방법을 체계화한 크레스웰의 접근이다. 크레스웰은 간호학 분야의 스트라우스와 코빈(Strauss & Corbin, 1990)이 제시한 유형 — 근거이론, 문화기술지, 현상학, 생애사 —, 그리고 덴진과 링컨의 유형 — 사례연구, 문화기술지, 현상학, 근거이론, 전기연구 — 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새롭게 재구성하고 있다. 크레스웰이 정립한 전통적 질적 연구방법론의 유형에는 총 다섯 가지, 즉 전기적 생애사, 현상학, 근거이론, 문화기술지 그리고 사례연구가 포함된다. 이러한 방식에 기초하여 크레스웰은 초점, 학문적 기원, 자료 수집, 자료 분석, 그리고 내러티브 형식을 기준으로 전통적인 질적 연구방법론의 다섯 유형을 특징화하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질적 연구는 그 개념, 목적, 연구 상황 그리고 전통적 방법론의 유형 구분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왔다. 비판언론학에서 질적 연구방법의 의미는 이러한 다차원적 논의 속에서 발견된다.

한편, 질적 연구방법의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대중매체 비평방법론의 유형 역시 참조할 필요가 있다. 알렌(1987/1992)은 대중매체로서의 TV비평을 위한 방법론을 크게 8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이론적 논의와 방법론적 적용을 행하고 있다. 예컨대, 기호학, 서사이론과, 독자반응 비평, 장르연구, 이데올로기 분석, 정신분석학, 페미니스트 비평, 그리고 영국의 문화연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사버거(1990)는 『대중매체비평의 기초』에서 기호학, 맑스주의, 정신분석학, 사회학 등 총 4가지 범주의 비평방법론을 제시한 후 TV, 미식축구, 상품광고, 라디오 등의 대중매체에 적용, 분석하고 있다(강

진숙, 2008, 179쪽). 이와 같이 대중매체 비평방법론으로 제시된 비판언론학의 이론자원들인 기호학, 미학, 정치경제학, 담론분석, 정치경제학, 문화연구, 담론연구 등은 양적 연구로 설명하기 힘든 구조와 주제, 그리고 양자 간의 매개작용들을 질적으로 접근하여 심층적 분석과 귀납적 결론을 도출하는데 부합한다.

하지만, 문제는 다양하게 제시된 질적 연구의 전통들이 언론학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하는 점에 있다. 특히 맑스주의 사회과학 이론과 프랑수아 68혁명 이후의 서구 지성사, 그리고 1980년대 한국 사회운동의 실천적 자양분을 흡수해 발전해온 한국의 비판언론학은 과연 어떠한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고 분석도구들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면밀한 탐색이 필요하다. 주지했듯이 비판언론학은 새로운 미디어 환경 속에서 문헌연구를 넘어서서 보다 엄밀하고 체계적인 방법론을 개발, 실험하지 않는 한, ‘종합’적 목적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안티테제’의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론의 주요 범주인 전기적 생애사, 근거이론, 문화기술지, 사례연구를 비롯해 매체비평방법론의 주요 범주인 기호학, 미학, 정치경제학, 담론분석방법 등 총 8가지 이론적 방법론의 적용 사례를 분석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그 이유는 이러한 사례들은 앞에서 살펴본 질적 연구방법론의 주요 범주이면서 매체비평방법론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이론적 영역들이고, 비판언론학의 주요한 이론적 자원이기 때문이다.

### 3.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비판언론학의 질적 연구방법 적용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연구문제들을 설정하였다. 이 연구문제들은 주로 분석대상의 학술논문

들이 질적 연구방법을 세부적인 항목들 속에서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발견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 |        |                          |
|--------|--------------------------|
| 연구문제 1 | 어떠한 이론적 배경 및 방법론을 사용했는가? |
| 연구문제 2 | 어떠한 표본추출 전략을 적용했는가?      |
| 연구문제 3 | 어떠한 자료 수집방법을 이용했는가?      |
| 연구문제 4 | 어떠한 자료 분석방법을 사용했는가?      |
| 연구문제 5 | 신뢰성 검증은 어떻게 하였는가?        |

## 2) 분석대상 선정 방법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비판언론학 분야에서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한 사례들이다. 이러한 사례들에 적합한 대상을 추출하는 기준으로서 우선, 비판언론학 분야의 학술논문들로 범위를 제한시켰다. 여기서 학술논문에 제한시킨 이유는 공신력 있는 심사과정을 거칠 뿐 아니라 연구방법론에 대한 엄밀한 접근을 꾀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부딪치는 난점은 과연 비판언론학 분야의 학술논문들을 어떻게 선별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비판언론학의 지향과 정체성을 지닌 언론정보학회의 등재학술지인 『한국언론정보학보』를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이 학회는 기본적으로 창립 당시 밝힌 바와 같이 “언론의 민주화, 민주적 정보사회와 우리 사회의 민주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학술운동단체”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고, 이 학술지 역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회의 정체성에 부합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표본논문의 추출기간은 자료검색이 가능한 1998년도의 『한국언론정보학보』 제11권부터 최근 2007년 제40권까지로 설정하였고, 이 기간에 게재된 총 254편의 논문들 중에서 본 연구의 주제에 부합하는 논문들을 수집해 들어갔다.

논문의 수집방법은 키워드 검색기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최종 검색 키워드를 선정하기 전에 다른 다양한 방법론들, 예컨대 비판언론학, 비판커뮤

니케이션, 질적 연구, 질적 방법, 전기적 생애사, 근거이론 등의 키워드들을 투입했지만 총 1편(‘비판커뮤니케이션’)이 검색되었다. 이러한 시행착오 과정을 거쳐 이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 및 방법론의 유형에 준거한 검색 키워드들을 최종 선별하여 투입하였다. 즉 전기적 생애사, 근거이론, 문화기술지, 사례 연구, 기호학, 미학, 정치경제학, 담론분석 등 총 8개의 키워드가 그것이다. 위의 키워드들을 투입한 결과 총 51편의 논문들이 추출되었다. 이처럼 1단계 추출과정을 거친 논문들 중에서 연구방법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는 논문들을 제외시켜 2단계 추출과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 21편의 논문들이 최종 수집되었다.

### 3) 분석방법

자료 분석을 위해 총 다섯 가지 분석 범주를 설정하였는데, 이것은 이론적 배경 및 방법론, 표본추출전략, 자료 수집방법, 자료 분석방법 그리고 신뢰성 검증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의 근거는 크레스웰이 제시한 질적 연구의 일반적 연구절차를 참조하여 재구성하였고, 특히 아직까지 국내 질적 연구에서 활성화되지 않은 ‘신뢰성 검증’의 범주도 포함시켰다. 분석범주의 근거들은 언론정보학회에 게재된 논문들의 키워드와 초록, 본문 등을 직접 반복적으로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 (1) 이론적 배경 및 방법론

이론적 배경은 질적 연구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자의 시각과 입장, 논거들이 제시되는 영역이다. 이 이론적 배경의 유형은 연구자마다 다양하게 제시된다. 이를테면, 최소 3개 항목(Miles & Huberman, 1994; Slife & Williams, 1995)에서 최대 28개 항목(Tesh, 1990)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주요 관심에 따른 질적 연구의 이론적 배경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사이에는 개인, 사회 혹은 문화와 같이 인간생활에 대한 연구자의 주요 관심 ‘영역’에 따라 18개의 유형들로 체계화하는 경우(Miller & Crabtree, 1992)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 및 방법론으로서 총 8가지 범주를 제시하고자 한다. 즉 전기적 생애사, 근거이론, 문화기술지, 사례연구, 기호학, 미학, 정치경제학, 담론분석이 여기에 포함된다.

## (2) 표본추출전략

질적 연구에서의 표본추출은 연구의 참여자 및 분석대상에 대한 의도적인 선택 기준을 결정하는 것이다(Creswell, 1998/2005, p.150). 이러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이유는 각각의 표본추출이 갖는 목적과 전략들을 표명함으로써 연구대상 선정의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예컨대, 전기 연구에서 개인은 친숙하고 찾기 쉽기 때문에 ‘편의’ 표본추출할 수 있고, 주의를 끌거나 주변화된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례’로 표본추출이 가능하다. 즉 연구자는 참여자 개인이 저명한가 혹은 주변적이거나 평범한지 여부에 따라 여러 가지 표본 추출전략을 선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수의 표본을 다루는 질적 연구방법의 특성상 표본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나 선별기준보다는 연구의 용이성과 대상과의 친밀감을 기본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현상학 연구와 근거이론의 경우는 보다 엄격한 표본추출전략이 요구된다. 현상학의 경우, 참여자들이 연구될 현상을 경험할 경우 대표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근거이론의 경우에도 연구자는 이론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참여자를 선택한다. 즉 이론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개인들을 조사하기 때문에 ‘이론적 표본추출’로서 지칭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담론분석은 상반된 입장의 뉴스와 기사들을 비교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상반된 입장의 표본들을 선정할 수 있다. 담론분석은 기본적으로 담론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한 입장과 의미의 적대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권력의 메커니즘을 드러내는 데 유용한 질적 방법론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질적 연구에서 표본추출전략은 연구문제와 연구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친밀성 전략에서 제한적인 의도적 추출전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될 수 있다. 표본추출의 사례는 이론기반, 극단적 또는 일탈적 사례,

전형적 사례,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례들, 그리고 무작위 의도적, 편의적 추출 등이 대표적이다.

### (3) 자료 수집방법

자료 수집방법은 표본추출전략에 이어 연구자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즉 연구자가 참여자 및 장소를 선별한 후 가장 적합한 자료 수집방법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연구는 하나 이상의 자료원을 포함하고, 이 정보들을 수집하기 위해 연구자는 정보 기록을 위한 서면양식 혹은 지침서(protocol)를 개발하고, 기록과정의 구조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Creswell, 1998/2005, p.143). 이와 함께 정보를 손실할 수 있는 현장의 장애와 난점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하고, 최종적으로 자료의 용이한 검색, 자료보관, 그리고 자료 저장 방법의 결정이 이 자료 수집활동과 연관된 일련의 절차들이 중요하다.

가장 기본적인 자료 수집방법으로서 인터뷰(개방형, 반개방형), 참여자의 일기, 유관 문서 및 기록물 수집, 참여관찰, 일상적 대화, 인공물 등을 들 수 있다.

### (4) 자료 분석방법

질적 연구에서 자료 분석방법은 일관되고 정형화된 형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연구자의 개인적 특성과 연구태도, 그리고 연구주체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변형되고 구성되는 것이다. 때문에 자료 분석은 ‘직접 해봄으로써 배우는’(Dey, 1993, p.6) 것이다. 이 점은 질적 연구에 대한 비판의 지점이 되기도 하는데, 그 요점은 질적 연구가 매우 직관적이고 유연하며, 상대주의적이라는 것이다. 질적 연구자들이 세 가지 ‘I’, 즉 통찰력(insight), 직관(intuition), 그리고 인상(impression)에 치우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는 것(Dey, 1995, p.78)도 바로 이 점에 기인한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질적 연구의 자료 분석방법을 예시하면, 내용분석, 반복비교, 이야기 분석법, 조건적 매트릭스(근거이론)를 들 수 있다.



### (5) 신뢰성 검증

신뢰성 검증은 질적 연구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그 이유는 우선, 이 검증 절차가 질적 연구에서 중요한 연구자의 주관성을 보다 타당한 근거 속에서 도출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질적 연구를 위한 상세하고 정밀한 기술의 검증, 그리고 연구 참여자의 진술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연구의 수준과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한 연구절차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양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타당도, 신뢰도’라는 용어 대신 ‘검증, 신뢰성(trustworthiness)’(Lincoln & Guba, 1985; Creswell, 1998/2005)이라는 용어를 질적 연구에서는 선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질적 연구는 정량적 신뢰도를 측정하기보다는 정성적 측면에서 연구의 타당성과 독특한 접근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링컨과 구바(Lincoln & Guba, 1985, p.300)는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 범주로서 신빙성(credibility), 이전가능성(transferability), 의존가능성(dependability), 확증가능성(confirmability) 등 네 가지 측면을 제기하였고, 크레스웰은 신뢰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 동의하고 있다(Creswell, 1998/2005, p.244). 본 연구에서는 이 세 연구자들의 논의를 수용하여 ‘신뢰성’ 검증의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 4. 분석결과

### 1) 이론적 배경 및 방법론

이론적 배경 및 방법론의 유형 분포를 분석한 결과, 사례연구와 담론분석의 경우 총 51편 중에서 각각 18편(35.3%)과 17편(33.3%)으로 모두 3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표 3> 참조). 하지만, 문화기술지와 미학은 각각 2편, 1편으로 2~3%대의 저조한 비율을 나타냈다. 이것은 곧 아직까지 비판언론학의 이론적 방법론의 범주가 사례연구와 담론분석에 편중되면서 다양한

&lt;표 3&gt; 수집한 논문의 방법론별 분포(중복 허용)

방법론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비율(%)
전기적 생애사	0	0	0	0	0	0	0	0	0	0	0	0
근거이론	0	0	0	0	0	0	0	0	0	0	0	0
문화기술지 (민속지학)	0	0	0	0	1	0	0	0	0	1	2	3.9
사례연구	0	0	0	0	1	3	1	4	4	5	18	35.3
기호학	0	0	1	1	1	1	0	1	0	1	6	11.8
미학	0	0	0	1	0	0	0	0	0	0	1	2.0
정치경제학	1	0	0	1	0	1	0	0	4	0	7	13.7
담론분석	0	0	0	2	1	2	4	1	7	0	17	33.3
합계	1	0	1	5	4	7	5	6	15	7	51	100.0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문화기술지와 미학의 경우 정치경제학적 접근이나 담론분석에 비해 극히 미미한 관심과 연구 적용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특히 전기적 생애사와 근거이론적 방법론의 적용은 전무하다는 점에서 비판언론학의 질적 연구방법 적용의 편차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것은 비판언론학 연구에서 질적 연구방법의 적용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방법론의 다양한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위의 분포도는 두 가지 이상의 방법론을 중복 사용한 사례를 허용한 결과이다. 이처럼 중복 사용하고 있는 논문들은 총 9편으로 나타났고, 이 중에서 양적 방법을 병행하고 있는 논문 1편을 제외시킨 결과 아래와 같이 총 8편으로 집계되었다. 이 논문들의 주제, 분석대상, 그리고 중복 사용된 이론적 배경 및 방법론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방법론을 중복 사용한 질적 연구사례에서 빈번히 사용된 분야는 담론분석과 사례연구였다. 언론정보학회의 논문들 중에서 이 두 방법론이 자주 발견되기 시작한 시기는 2004년과 2005년도 이후였다. 이것은 곧 비판언론학계에서 담론과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방법론에 대한

&lt;표 4&gt; 중복 적용한 이론적 배경 및 방법론의 사례

사례	주제	분석대상	이론적 배경/방법론
1	이윤화 기제	블로그	정치경제학, 문화기술지
2	포토저널리즘, 수용자 해독	사진, 캡션	문화기술지, 기호학
3	사진행위	사진	미학, 기호학
4	언론권력	언론산업, 시장구조	정치경제학, 사례연구
5	교육위기 담론	한겨레, 조선일보 기사	담론분석, 사례연구
6	온라인 시민사회운동, 공론장	안티닉스 운동전략과 게시판	담론분석, 사례연구
7	젠더담론, 뉴스 프레임	한겨레, 조선일보의 여성관련 범죄뉴스	담론분석, 사례연구
8	가상공간의 권력, 유교적 가부장적 담론, 팬덤	TV시청자 게시판	담론분석, 사례연구

관심의 활성화 시점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특히 2006년도에는 사례연구와 정치경제학이 공히 4편씩, 그리고 담론분석의 경우 7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이로써 다른 해에 비해 무려 두 배나 많은 방법론의 적용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 2) 표본추출전략

앞에서 언급했듯이 질적 연구에서 표본추출전략은 연구문제와 연구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친밀성 전략에서 제한적인 의도적 추출전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될 수 있다. 예컨대, 표본추출의 방법을 보면, 이론기반, 극단적 또는 일탈적 사례, 전형적 사례,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례들, 그리고 무작위 의도적, 편의적 추출 등 다양한 전략유형들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행한 표본추출(Sampling)전략에 대한 분석결과, 질적 연구방법의 전형적인 표집방법인 눈덩이 표집,<sup>4)</sup> 의도적 표집, 편의 표집 그리고 기준 표집<sup>5)</sup> 등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이 중에서도 특히 의도적

<표 5> 표본추출전략의 적용사례

사례	이론적 배경/방법론	표본추출전략
1	문화기술지, 정치경제학	눈덩이 표집: 78개 표본, 의도적 표집: 33개 블로그, 참여자 25명
2	문화기술지, 기호학	의도적 표집: 5개 표본(사진), 편의 표집: 6명
3	미학, 기호학	제시하지 않음
4	정치경제학, 사례연구	기준 표집: 관련 사이트
5	담론분석, 사례연구	의도적 표집: 2개 특정 신문
6	담론분석, 사례연구	기준 표집: 기간, 글의 유형, 조회 수
7	담론분석, 사례연구	의도적 표집: 2개 특정 신문
8	담론분석, 사례연구	의도적 표집: 특정 사이트 게시판
9	사례연구	기준 표집: 주제어 검색
10	사례연구	비확률 표본추출 할당표집(Quote Sampling)*
11	사례연구	의도적 표집: 전문가 10명
12	기호학	편의표집**: 임의 건물
13	기호학	편의표집
14	기호학	기준 표집: 주제어 검색
15	정치경제학	의도적 표집: 특정 의제
16	담론분석	의도적 표집: 특정 방송뉴스 및 신문기사
17	담론분석	기준 표집: 주제어 검색
18	담론분석	기준 표집: 기간, 주제어 검색
19	담론분석	의도적 표집: 특정 주제
20	담론분석	기준 표집: 주제어 검색
21	담론분석	기준 표집: 주제어 검색

\* 비확률 표본추출: 연구대상이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이 알려져 있지 않을 때 사용하는 표본추출방법으로 질적 조사, 탐색적 조사에 적합함.

\*\* 편의표집: 정보와 신빙성보다는 시간, 비용, 노력을 절약하기 위한 편의적 표본추출방법.

- 4) 눈덩이(snowball) 표집은 ‘눈덩이 굴리기’ 또는 연쇄(chain), 누적 표집방법으로서 풍부한 정보를 가진 사례에 대해 연쇄적으로 관심 사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Creswell, 1998/2005, 151쪽 참조.
- 5) 기준(Criterion)표집은 몇 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모든 사례들을 표본추출하는 방법으로 질 보증에 유용하다. Creswell, 1998/2005, 151쪽 참조.

표집과 기준 표집이 빈번하게 사용되었고, 이론적 배경 및 방법론별로 상이한 특성을 보여주었다. 예컨대, 담론분석의 경우 주제어 검색을 이용한 기준 표집 사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담론분석과 사례연구를 병행할 경우 주로 의도적 표집을 통해 특정 신문과 인터넷 게시판을 선정하여 자료 수집하는 사례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절반 이상의 연구들이 표본추출전략, 즉 분석대상의 선정목적과 절차에 대한 논의보다는 간략하게 분석대상을 소개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분석대상을 선정하는 과정 역시 연구의 목적을 실현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무엇’이라는 논의는 있지만, 왜 그리고 어떻게 그 대상을 선정했는지에 대한 추출전략에 대한 논의가 부재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비판언론학에서 표본추출과정에 대한 방법론의 필요성과 인식이 공유되지 않은 데서 기인한다. 질적 연구가 소수의 분석대상을 선정하더라도 표본추출전략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표본추출이 갖는 목적과 전략들을 제시함으로써 연구대상 선정의 합리적 근거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질적 연구의 특성이 연구주제에 대한 일반적 결론 도출이 아니라 특수하고 심층적이고 탐구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해당 연구에 고유한 표본추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Gehart 외, 2001)이다. 이 점은 곧 앞에서 논의한 비판언론학에서 질적 연구방법의 필요성을 환기시킨다. 즉 진보적 가치의 재생산은 선명한 입장의 표명과 주장을 넘어서서 그 입장을 설득하는 과정과 논리적 증명방법 역시 중요한 것이다.

### 3) 자료 수집방법

이 방법은 연구자가 표본추출전략을 설정한 후 참여자 및 장소, 이론 대상과 관련해 가장 적합한 자료 수집방법을 결정하는 단계이다. 이 방법에는 인터뷰, 참여자의 일기, 유관 문서 및 기록물 수집, 면접 및 관찰지침서의 이용 등 정보기록에 대한 접근, 일상적 대화, 인공물 등을 통한 자료 수집방법들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 자료 수집방법을 분석한 결과, 가장 두드러진 방법은 카인즈 검색으로서 주로 담론분석에서 나타났다(<표 6> 참조). 그 뒤를 이어 문헌조사방법이 빈번히 나타났는데, 이 경우는 기호학과 사례연구에서 대부분 사용되었다. 반면, 이와 유사한 빈도로 자료 수집방법을 제시하지 않는 논문들도 눈에 띄었다. 그 밖에도 심층인터뷰와 참여관찰 및 완전관찰자 접근 방법은

&lt;표 6&gt; 자료 수집방법의 적용사례

사례	이론적 배경/방법론	자료 수집방법
1	문화기술지, 정치경제학	참여관찰(6개월), 심층인터뷰
2	문화기술지, 기호학	개별 심층인터뷰(2~3회)
3	미학, 기호학	문헌조사
4	정치경제학, 사례연구	문헌조사
5	담론분석, 사례연구	카인즈(KINDS) 검색
6	담론분석, 사례연구	인터넷 게시판 검색
7	담론분석, 사례연구	카인즈(KINDS) 검색
8	담론분석, 사례연구	완전관찰자 접근, 인터넷 게시판 검색
9	사례연구	ProQuest 데이터베이스
10	사례연구	데이터, 영상자료 수집
11	사례연구	심층인터뷰(눈덩이식 질문 병행), 문헌조사
12	기호학	문헌조사
13	기호학	참여관찰, 사진조사, 비디오 대역
14	기호학	영상자료 수집
15	정치경제학	문서조사
16	담론분석	제시하지 않음
17	담론분석	카인즈(KINDS) 검색
18	담론분석	제시하지 않음
19	담론분석	제시하지 않음
20	담론분석	카인즈(KINDS) 검색
21	담론분석	카인즈(KINDS) 검색

\* 눈덩이식 질문(snow balling questioning): 특정한 사안에 대해 인터뷰 참여자에게 다른 집단의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견의 차이를 연쇄적으로 질의해가는 질문.

다른 것에 비해 저조한 수준을 보였고, 인터넷 게시판 검색과 비디오 및 영상 자료 수집 등의 사례는 아주 드물게 나타났다.

여기서 특히 고려할 점은 자료 수집방법을 ‘문헌조사’나 ‘키워드 검색’ 등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추상적인 논의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자료 수집방법의 범주를 분석방법과 혼동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고 어떠한 검색절차와 기술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자료 수집절차에 대한 논의를 연구방법론에서 부차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자료 수집방법에 대한 보다 면밀한 논의를 위해서는 최종 자료 수집방법을 적용하기까지의 과정적 절차와 오류 경험에 대한 논의도 요구된다.

#### 4) 자료 분석방법

자료 분석방법의 적용사례를 분석한 결과, 주로 내용분석과 의미분석의 방법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상술해보면, 담론분석의 경우는 수사, 서사구조, 담론분석이, 담론분석과 사례연구가 중복되는 사례에서는 의미분석, 내용분석, 프레임분석 등이, 그리고 기호학적 접근 사례는 이미지, 신화, 서사구조, 의미구조 분석 등 다양한 차원의 분석방법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각각의 이론적 전통의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내용분석 방법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재고의 여지가 있는 점은 자료 수집방법과 마찬가지로 내용분석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의 제시가 미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전통적 방법론과 이론적 배경 및 방법론에 근거하여 각 연구상황에 적합한 전통적인 분석방법을 엄격하게 응용하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비판언론학에서 질적 연구의 전통적 분석방법에 대한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 물론 예외적으로 <사례 2>에서처럼 기호의 심층에 자리한 함축적 의미를 분석하는 의미분별법을 엄밀히 적용하거나 <사례 6>처럼 6단계 질적 분석절차를 세부적

<표 7> 자료 분석방법의 적용사례

사례	이론적 배경/방법론	자료 분석방법
1	문화기술지, 정치경제학	내용분석
2	문화기술지, 기호학	의미분별법(함축의미 분석)
3	미학, 기호학	내용분석
4	정치경제학, 사례연구	내용분석
5	담론분석, 사례연구	의미분석
6	담론분석, 사례연구	내용분석, 사례분석(유사패턴분석)
7	담론분석, 사례연구	프레임 분석
8	담론분석, 사례연구	6단계 질적분석 절차
9	사례연구	내용분석
10	사례연구	양적 내용분석(코드의 빈도)
11	사례연구	이야기 분석법
12	기호학	사회기호학적 분석(통합체, 계열체)
13	기호학	이미지, 신화분석
14	기호학	서사구조, 의미구조 분석
15	정치경제학	어휘분석, 담론맥락 분석
16	담론분석	담론분석
17	담론분석	수사분석
18	담론분석	서사구조, 담론분석
19	담론분석	언표분석
20	담론분석	담론분석
21	담론분석	담론분석

으로 제시, 적용하는 사례는 고무적이다. 여기서 6단계 질적 분석절차는 ① 자료정리, ② 주제, 유형, 범주 설정, ③ 자료코딩, ④ 자료 이해 및 해석점검, ⑤ 대안적 해석 및 설명 찾기, ⑥ 보고서 작성(Marshall & Rossman, 1999, pp.152~164) 등을 포함하는 질적 분석방법을 지칭한다.



## 5) 신뢰성 검증

마지막으로 양적 연구뿐 아니라 질적 연구에서도 점차 요구와 필요의 수위가 높아지는 것이 이 신뢰성 검증이다. 양적 연구에 비해 질적 연구는 ‘주관적 오류’를 더 노정할 위험이 있다는 세간의 우려는 차치하고라도 자체적으로 비판언론학의 질적 연구방법론을 체계화하고 엄격한 적용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는 신뢰성 검증 절차를 논문에 적극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럴 경우에만 검증의 허점과 대안적 논의들이 활발히 논의됨으로써 질적 연구방법론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뢰성 검증방법의 적용사례를 분석한 결과 일부 논문에서 신뢰성 검증의 시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예컨대, 실증자료의 활용 근거로서 각주처리 방식을 선택한 경우, 연구자 외의 참여자가 일부 분석과정을 분담한 경우, 그리고 연구자 외 참여자 전원완전일치도 측정을 통한 검증 방법들이 그러한 경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결과가 도출되기 이전의 사전 단계가 아니라 사후적으로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결과를 확인, 검증받는 절차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테면 심층인터뷰를 행할 경우 연구결과 중간과 사후에 인터뷰 참여자에게 오류 수정 및 의견 반복의 여부에 대한 검증절차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질적 연구의 핵심가치인 연구 참여자의 주관성은 이러한 검증과정을 통해 더욱 명료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질적 연구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신뢰성 검증 방법들을 살펴보면, 비판언론학의 질적 연구에서 어떻게 신뢰성 검증을 실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밀러(Miller)와 크레스웰(1977)의 논의를 중심으로 몇 가지 중요한 방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Creswell, 1998/2005, pp.244~247 참조). 우선, 현장에서의 지속적인 참여와 끊임없는 관찰 방법이다. 이러한 검증 방법은 이론화하고 분석하는 연구과정에서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바탕으로 참여자들의 신뢰를 검증할 뿐 아니라 연구자 혹은 정보제공자의 왜곡된 견해와 잘못된 정보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두 번째는 참여자

<표 8> 신뢰성 검증방법의 적용사례

사례	이론적 배경/방법론	신뢰성 검증
1	문화기술지, 정치경제학	제시하지 않음
2	문화기술지, 기호학	제시하지 않음
3	미학, 기호학	제시하지 않음
4	정치경제학, 사례연구	제시하지 않음
5	담론분석, 사례연구	제시하지 않음
6	담론분석, 사례연구	제시하지 않음
7	담론분석, 사례연구	실증자료의 각주 제시
8	담론분석, 사례연구	제시하지 않음
9	사례연구	판별자 신뢰도(연구자 외 1인 분석 참여)
10	사례연구	판별자 신뢰도(연구자 외 7인 전원완전일치도)
11	사례연구	제시하지 않음
12	기호학	제시하지 않음
13	기호학	제시하지 않음
14	기호학	제시하지 않음
15	정치경제학	제시하지 않음
16	담론분석	제시하지 않음
17	담론분석	제시하지 않음
18	담론분석	제시하지 않음
19	담론분석	제시하지 않음
20	담론분석	제시하지 않음
21	담론분석	제시하지 않음

확인 방법이다. 이것은 연구결과와 해석의 신뢰성에 대한 정보제공자의 관점을 구하는 기법이다. 그 목적은 참여자들에게 되돌아가 이야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 참여자들에게 대안적 표현과 연구 작업 초안에 대한 수정을 요청해야 한다. 세 번째는 연구의 초기부터 연구자의 편견을 명확히 하는 방법(Merriam, 1988)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연구자 혹은 연구 참여자의 과거 경험, 편견,

선입관, 지향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링컨과 구버(Lincoln & Guba, 1985, p.300)는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자료원, 방법론, 연구자의 삼각검증법(triangulation)을 제시하였다. 즉 지속적인 현장 참여와 신뢰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료원으로부터 증거를 수집하거나 두 개 이상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나아가 대표적 연구자뿐 아니라 다양한 층위의 연구자와 결합하는 방법을 실시하는 것이다. 그 밖에도 동료 검토나 외부 감사 등의 방법들도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방법이긴 하지만, 규모가 큰 연구의 경우는 방법론적 체계화와 검증 유형의 다양화를 피하기 위해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신뢰성 검증 방법은 주로 판별자 신뢰도 검증, 즉 다양한 연구자의 선정기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한편, 참여자들에 대한 검증 절차나 연구자 및 연구 참여자의 과거 경험, 편견, 선입견, 지향 등에 대한 확인과 전제를 통한 신뢰성 검증방법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요컨대, 양적 연구에서 신뢰도 측정이 주요하게 적용되고 문제시되는 것처럼, 타 학문분야의 질적 연구에서는 엄격한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 방법이 제시되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비판언론학 분야에서는 질적 연구결과의 신뢰성 검증방법의 제시는 물론 방법론의 개발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 6) 소결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우선 비판언론학의 질적 연구사례에서 빈번히 사용된 이론적 배경과 방법론분야는 총 8개 분석범주 중 담론분석과 사례연구였다. 2004년과 2005년을 기점으로 이 두 방법론이 자주 사용되었다면, 2006년도에는 정치경제학적 접근이 언론권력 분석에 자주 적용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문화기술지와 미학의 경우 정치경제학적 접근이나 담론분석에 비해 극히 미미한 관심과 연구 적용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특히 전기적 생애사와 근거이론적 방법론의 적용사례가 추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언

론학의 질적 연구방법 적용의 편차를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로 표본추출전략을 적용한 결과를 분석해보면, 질적 연구방법에서 주로 사용되는 표집방법인 눈덩이 표집, 의도적 표집, 편의 표집 그리고 기준 표집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반면, 대부분의 연구들이 분석대상의 선정목적과 절차에 대한 논의를 통해 표본추출전략을 설정하기보다는 분석대상을 소개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점은 비판언론학의 질적 연구방법을 체계화하는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소수의 분석대상을 선정하는 질적 연구의 경우 오히려 더 엄밀한 표본추출의 목적과 전략을 설계함으로써 질적 연구의 대상선정에 대한 합리적 절차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자료 수집방법을 분석한 결과 주로 담론분석에서 키워드 검색을 통한 자료 수집을 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문헌조사방법이 주로 사용되었는데, 기호학과 사례연구에서 빈번히 사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현장과 대상에 근접하여 보다 생생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참여관찰과 심층인터뷰 등의 접근방법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이용 빈도를 나타냈다. 여기서 문제는 양적인 비교의 기준에서 어느 특정 방법을 주로 사용하거나 누락시킨다는 점에 있지 않다. 오히려 고려할 점은 ‘문헌조사’나 ‘키워드 검색’ 등의 방법을 명시하고 있지만, 자료 수집방법의 범주를 분석방법과 혼동하거나 자료 수집방법의 절차를 생략해도 되는 부차적인 방법으로 간주하는 경향이다. 질적 연구의 체계적인 방법론 개발과 적용을 위해서는 자료 수집방법의 범주화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최종 자료 수집방법을 적용하기까지의 과정적 절차와 오류 경험에 대한 논의가 요구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넷째, 자료 분석방법의 적용사례를 볼 때 내용분석과 의미분석방법이 주로 활용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담론분석의 경우는 수사, 서사구조, 담론분석이 주로 사용되었고, 담론분석과 사례연구가 중복된 사례에서는 의미분석, 내용분석, 프레임 분석 등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분석방법에 대한 세부적 절차에 대한 논의는 아주 미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자료 분석방법이 중요한 이유는 동일한 대상이라 해도 분석방법에 따라

상이한 분석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근거이론의 경우 새로운 이론 개발을 위한 조건적 매트릭스를 발전시킬 수 있고, 현상학적 접근은 연구자의 경험이 기술된 자료를 의미단위로 분류하여 조직적, 구조적 해석방법을 취할 수 있다. 비판언론학의 질적 연구방법에서 현재 필요한 것은 학제간 융합을 거친 이론적 자원들을 방법론화하고, 방법론화된 이론들을 언론학에 맞게 개발해내는 작업이다.

마지막으로 신뢰성 검증에 대한 분석결과, 일부의 연구결과에서 실증자료의 활용근거로서 각주처리 방식을 선택한 방법, 연구자 외의 참여자가 일부 분석과정을 분담하는 방법, 그리고 연구자 외 참여자 전원완전일치도 측정을 통한 검증방법들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뢰성 검증방법은 비판언론학의 질적 연구사례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 이유는 신뢰성 검증이 주관성에 의존하는 질적 연구에서 오히려 중요한 검증 방법론의 한 범주임에도 불구하고 양적 연구의 방법론적 범주로 인식하는 경향, 혹은 개인 작업이 주를 이루는 질적 연구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비판언론학의 질적 고양을 위해서는 질적 연구자들 간에 보다 엄밀한 공동의 신뢰성 검증시스템을 만들어 협력 작업을 꾀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다.

## 5. 맺음말

이상의 분석결과를 볼 때, 국내 비판언론학은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보다 세부적이고 엄격한 방법론적 논의와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양한 이론과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지만, 방법론을 설계하고 결론을 도출함에 있어 세부적인 분석범주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시 제기되는 문제는 비판언론학에서 과연 질적 연구방법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하는 것이다. 비판언론학의 지향이 진보적 가치

와 사회적 관심을 전제로 할 때, 단순히 슬로건이나 안티테제의 제시를 넘어서서 보다 주도적인 이슈 선점과 분석 형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침대의 길이에 맞춰 사람들을 늘리거나 절단했던 그리스 신화의 프로크루스테스처럼 점차 학문영역의 가치와 의미 역시 산업적 실익과 실용성이라는 등가 척도에 맞추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가 비판언론학에서 질적 연구방법론이 적용되는 경향을 분석하고, 방법론의 체계화 필요성과 그 의미를 공유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현실적으로 1980년대의 첨예한 이데올로기적 적대의 지형은 2008년 현재보다 복잡하고 새로운 지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촛불시위에서 볼 수 있듯이 집단의 사상과 힘이 중시되었던 과거에서 벗어나 점차 개인의 차이와 자발적 생성의 힘이 연대를 만들어 가는 사회가 도래한 것이다. 학문적 실천의 측면에서 비판언론학이 안티테제의 화두를 던지는 것을 넘어서서 보다 자생적이면서 차이 그 자체를 생성할 수 있는 방법론의 성찰이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질적 연구의 당위는 인정하면서도 연구방법론에 대한 무관심과 일부 연구방법의 편향적 선택, 그리고 검증의 절차를 도외시하는 비판언론학의 경향들은 이제 성찰의 입구 앞에 서야 한다.

## Ⅰ 참고문헌

- 강진숙 (2006). “위기인가 기회인가?": 신문방송학의 패러다임 변화와 공연영상과의 융합의미와 전망. 중앙대 미디어 공연영상대학 창설기념 국제 심포지엄. 『신문방송의 패러다임 변화와 공연영상과의 융합전망』. 1~22.
- \_\_\_\_ (2008). 국내 인터넷 연구의 주제와 방법에 대한 메타 분석. 『한국언론학보』, 제52-2호, 173~198.
- 방정배 (1999). 방송 철학과 이념 그리고 한국 방송의 패러다임. 한국언론학회 국제심포지엄. 『한국방송의 환경변화와 미래적 전망』, 139~170.

- 양승목 (1989). 커뮤니케이션 연구 패러다임의 갈등과 정합적 발전의 전망. 이상희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현대사회와 커뮤니케이션이론』, 서울: 한길사, 221~256.
- \_\_\_\_\_ (1992). 탈냉전시대의 커뮤니케이션 연구: 패러다임 수렴과 그 함의.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보』, 제28호, 239~266.
- 원용진 (2005). 비판 커뮤니케이션론의 재구성. 제2차 한국언론정보학회 월례발표회.
- 이강형·이수영 (2006). 언론학 교육의 반성과 과제. 한국언론학회 2006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281~285.
- 이영찬 (2003). 쿤(T. S. Kuhn)의 패러다임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리기론적 패러다임 구성을 위한 예비적 논의. 계명대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논집』, 22권 1호, 29~50.
- 조항제 (1990). 한국의 비판커뮤니케이션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석사논문을 중심으로 인석 박유봉 박사 고회기념논문집. 『인간, 커뮤니케이션, 사회구조』, 서울: 보성사, 430~450.
- Creswell, J. W. (1998/2005).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전통』. 조홍식 외 공역. 학지사.
- Denzin, N. K. & Lincoln, Y. S. (1994).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 Dervin, B., Grossberg, L., O'Keefe, B. J. & Wartella, E. (eds.). (1989). *Rethinking communication: volume 1, paradigm exemplars*. Newbury Park, CA: Sage.
- Dey, I. (1993). *Qualitative data analysis: A user-friendly guide for social scientists*. London: Routledge
- \_\_\_\_\_ (1995). Reducing fragmentation in qualitative research. In U. Keele (Ed.), *Computer-aided qualitative data analysis* (pp.69~79). Thousand Oaks, CA.: Sage.
- Dizard, W. Jr. (1998). 『메가넷(Meganet)』. 이민규 옮김. 민음사.
- Ferment in the Field. *Journal of Communication*, 33(3), 1983.
- Hall, S. (1989). Ideology and communication theory. Dervin, B. et al., *Rethinking communication, volume 1, paradigm exemplars*, Newbury Park, CA: Sage,

40~52.

- Jacob, E. (1987). *Qualitative research traditions: A review*.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57, 1~50
- Kuhn, T. S. (1978). *Der Struktur wissenschaftlicher Revolution*. 3. Aufl., Frankfurt a. M.
- Lancy, D. F. (1993). *Qualitative research in education: An introduction to the major traditions*. New York: Longman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 Melody, W. H. & Mansell, R. E. (1983). The debate over critical vs. administrative research: circularity or challenge. *Ferment in the Field, Journal of Communication*, 33(3), 237~248.
- Merriam, S. (1988). *Case study research in education: A qualitative approach*. San Francisco: Jossey-Bass.
- Miles, M. B. & Huberman, A. M. (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A sourcebook of new methods(2nd ed.)*. Thousand Okas, CA: Sage
- Miller, W. L. & Crabtree, B. F. (1992). Primary care research: A multimethod typology and qualitative road map. In B. F. Crabtree & W. L. Miller (Eds.), *Doing qualitative research* (pp.3~28). Newbury Park, CA: Sage.
- Morse, J. M. (1994). Designing funded qualitative research. In N. K. Denzin & Y. S. Lincoln (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pp.220~235). Thousand Oaks, CA: Sage.
- Mosco, V. (1983). Critical research and the role of labor. *Ferment in the Field, Journal of Communication*, 33(3), 237~248.
- Moustakas, C. (1994).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Thousand Oaks, CA: Sage.
- Munhall, P. L. & Oiler, C. J. (Eds.). (1986). *Nursing research: A qualitative perspective*.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 Ragin, C. C. (1987). *The comparative method: Moving beyond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strategi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life, B. D. & Williams, R. N. (1995). *What's behind the research? Discovering hidden assumptions in the behavioral sciences*. Thousand Oaks, CA: Sage.
- Strauss, A. & Corbin, J.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Newbury park, CA: Sage.



\_\_\_\_\_ (1994). Grounded Theory methodology: An overview. In N. Denzin & Y. Lincoln (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pp.273~285). Thousand Oaks, CA: Sage.

(투고일자: 2008.05.31, 수정일자: 2008.07.16, 게재확정일자: 2008.07.29)

## **A Case Study on Appliance of Quality Survey Methodology to the Korean Critical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Jin-Suk Kang

Assistant Professor

(Dept. of Mass Communication, Chung-Ang University)

As past paradigm discussion was restricted to the political issues and related antagonistic ideologies, there are desires to reignite discussion from the concrete theological practices and differences in methodological variations. Interactive Study does not require mere antithesis phase but requires interactive study creation as phase itself.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quality methodology cases,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application of the methodology. For this purpose, current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discussions will be examined and characteristics of quality study and traditional methodology types will be scrutinized. In further, researches in the scientific journals of Korean Association for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Studies will be analyzed to point out trend of quality methodology. The scope of analysis includes theological background and methodology, sampling method, data collecting method, reliability analysis. Appliance of quality research method requires more rigid and detailed methodological discussions and applications.

**Keywords:** paradigm, quality methodology, critical communication, paradigm disagreement